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초청 기업인 간담회

전주상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안전한 일터 조성 위해 협력 다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9일 황정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을 초청하여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황정호 지청장을 비롯한 임병각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장형길 지역협력과장, 양헌우 근로개선지도과장, 최은나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참석하여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 탄력 적용(안종욱 올릭스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조속한 입법보완(임근홍 전문건협 전북도회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김상용 선진공업 대표이사) △외국인 유학생 지역기업 채용 연계 지원(나춘균 플러스건설 대표이사)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박영자 성웅종합건설 대표이사) △청년 채용 장기근속 지원 사업 발굴(김성희 나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지침 완화(고흥영 풀무원다논 부공장장) 등의 건의가 있었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9일 황정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을 초청하여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이번 간담에서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기업은 급변하는 노동정책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전주지청도 지역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신3고(고환율, 고금리, 고원자재가)와 내수침체로 인해 지역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시급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경직된 주52시간 근무시간제는 기업경영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기업인의 애로와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상공업계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간담에 이어 전북지방환경청,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의 간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지역 기업의 애로해소와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옥기기자

'왕궁 축사 매입지 닥나무 식재 · 활용사업' MOU 체결

전북환경청 · 전북자치도 · 전주시 · 익산시 · 신협중앙회 협력체계 구축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전주시(시장 우범기), 익산시(시장 정헌율),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가 9일 전주시에 소재한 전라감영에서 왕궁 축사 매입지의 닥나무 식재 ·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왕궁 축사 매입지 내 한지 원료인 닥나무를 식재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 수목을 재배 · 판매함으로써, 주민 소득 및 전통문화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간 전북환경청은 전북자치도, 익산시와 협력하여 왕궁의 수질 · 악취 개선을 위해 약 1,636억 규모의 323개 축사를 매입했다.

주민의 반대 등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작년에 13년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였다.

관계기관들은 어렵게 매입한 토지를 어떻게 복원 · 보전해 주민과 동식물들에게 제공할지 고민했고, 여러 활용방안 중 하나로 닥나무 식재 · 활용사업의 뜻에 공감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익산시, 신협중앙회가 9일 전주시에 소재한 전라감영에서 왕궁 축사 매입지의 닥나무 식재 ·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환경청과 익산시는 닥나무 식재 부지를 제공하고 주민 조합에게 대여할 때까지 묘목 관리, △전북자치도는 사업의 행정 · 재정적 지원, △전주시는 재배한 닥나무를 한지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매, △신협중앙회는 후원사로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관계기관들은 "닥나무 식재 · 활용사업을 통해 왕궁의 축사 매입지가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김옥기기자

탄소산업진흥원, 나노기술 · 나노전기전자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탄진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나노기술(ISO/TC229) · 나노전기전자(IEC/TC113) 2개 분야에 대한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됐다.

이번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에 따라 탄진원은 앞으로 5년간 나노소재 분야 산학연을 대상으로 국가표준제 · 개정 수요를 적극 발굴하는 등 표준화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나노기술 · 나노전기전자 분야의 표준개발, 표준검토, 표준 수요 조사 등 표준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국가표준제정을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탄노나노튜브, 그래핀 등 나노소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분야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나노기술의 국제표준 대비 국가표준 부합화 비율은 21.1%에 그친다.

탄진원은 그래핀 등 탄소나노소재를 비롯해 나노기술 및 나노전기전자분야 국가 표준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내 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경민 원장 직무대행은 "나노소재 · 부품 관련 전문 산학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관련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소재 신뢰성센터는 탄소소재 · 부품 신뢰성센터는 6대 탄소소재 · 부품에 대한 표준개발, 기초물성 및 신뢰성 검증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개발 및 표준/인증 지원 체계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개발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하림이 올해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초등장학생 도서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실천에 나섰다.

하림, 초등장학생 도서 시상 꿈 응원

올해까지 679명에 총 3억4000만원 상당의 도서 후원

하림이 올해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초등장학생 도서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실천에 나섰다.

종합식품기업인 ㈜하림은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제12회 하림과 함께하는 초등장학생 도서시상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2회째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하림 정호석 대표이사와 임직원, 익산교육지원청 정성환 교육장, 김태유 교육지원과장, 심지선 장학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조현정 원장을 비롯해 초등장학생 · 학부모, 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하림의 도서시상 행사는 지역 인재 양성과 청소년의 자아 확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돼 해마다 이어오고 있다. 익산지역 초등학교 학생 중 선발된 58명의 초등 장학생과 하림 임직원 자녀를 포함해 총 75명에게 장학 도서와 함께 특별히 준비한 하림 선물세트가 전달됐다.

전달된 도서는 과학, 인물, 한국사, 세계사, 전래동화 등 학생들이 원하는 도서를 직접 선택해 지급했다. 2013년 20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초등장학생 도서 시상은 매년 학생을 확대시켜 올해까지 총 679명에게 전달된 도서구입 누적금액이 3억 4,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하림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청소년 문화탐방, 과학영재 해외연수 등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지속해 갈 계획이다.

김은종 하림 지속경영팀장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지식과 정보의 요람인 도서를 전달해 견문을 확대하고, 정서 함양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꿈을 후원하기 위해 도서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산=이재춘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모피 일 년에 단 한번 초특가전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강정구)은 오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3층과 6층 이벤트홀에서 '모피 일 년에 단! 한번 역시즌 초특가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모피가 트렌디한 스타일과 저렴한 가격대로 출시되며 전 연령층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진도, 동우모피 두 브랜드가 참여하여 400벌 규모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금년 출시한 신상품을 60+10% 추가 할인하고 특가상품 및 이월상품은 최대 70~80%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행사기간 중 100만원/200만원/300만원/500만원/1,000만원이상 구매고객 대상 구매금액의 7%에 해당하는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선착순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패션팀 남현미리더는 고물가에 가성비 높은 역시즌 상품을 빠르게 선보인 행사라며, 평소 갖고 싶었던 아이템이 있다면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김옥기 기자